

순천 제1호 기적의 놀이터 '영동발똥' 오픈

놀이기구 없는 자연 놀이터 상상력만 갖고 놀러 오세요

돌·흙·통나무로 구성
아이들 생각 설계에 반영
2020년까지 10곳으로 늘려
26일 국제심포지엄 개최도

순천시가 놀이터지만 놀이기구가 없는 '제1호 기적의 놀이터 영동발똥'을 오픈했다.
순천시 연향 2지구 호반 3공원에 들어선 놀이터 영동발똥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 소재인 돌(바위)과 흙, 통나무 등을 주재료로, 흐르는 시냇물과 잔디, 언덕, 동굴, 나무 그루터기 등을 자연의 상태처럼 자연스럽게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영동발똥' 대한민국 놀이터 전향점 마련
=기적의 놀이터 영동발똥은 아이들이 낙엽, 모래, 물 등을 자유롭게 만지면서 놀고 스스로 상상하는 것을 놀이로 만들어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했다.

지난 7일 기적의 놀이터에서는 지역주민과 아이들, 기적의 놀이터 디자이너 편해문 작가가 참여해 기적의 놀이터 약속 선언, 숲 밭줄 놀이 등으로 기적의 놀이터 영동발똥 준공식을 진행했다. 순천시는 기적의 놀이터 1호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기적의 놀이터를 10곳까지 늘릴 방침이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기적의 놀이터는 전문가, 학교, 어린이들, 주민이 함께 계획하고 만든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순천에서 사는 아이들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 되길 바라며, 대한민국 아이의 놀이터를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와 놀이터 전문가, 주민, 행정이 함께 손잡고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었다.
지난해 7월 관내 초등학교생 1300명에게 놀이



순천시는 최근 연향 2지구 호반 3공원내에서 인공적인 놀이시설이 없는 '제1호 기적의 놀이터 영동발똥' 준공식을 가졌다. '놀이 영동발똥'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 소재를 주재료로, 흐르는 시냇물과 잔디, 언덕, 동굴, 나무 그루터기 등이 배치돼 있다.

터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8월에는 초등학교생 30명과 1박2일 기적의 놀이터 참여 시범학교를, 60명의 시민과 아이들이 기적의 놀이터를 직접 디자인하는 캠프를 운영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아이들의 생각을 설계에 직접 반영하고 공사를 추진했으며 어린이 감리단을 2회 운영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한 놀이터가 제대로 만들어지는지를 점검했다.

기적의 놀이터 '영동발똥' 명칭 또한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짓고 시민들이 선정해 아이들의 영동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제1호 기적의 놀이터와 잘 어울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놀이터 지킴이 운영으로 안심 놀이터 구축
=시는 제1호 기적의 놀이터를 아이들과 주민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놀이터 지킴이를

운영하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놀이터 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오는 26일에는 순천 기적의 놀이터 국제심포지엄을 순천국제심포지엄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놀이터의 미래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보다'를 주제로 국내외 놀이터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놀이터 조성 및 운영 사례 발표, 세계 놀이터 사진전 등을 통해 놀이터의 비전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이천시 순천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전국 제1호 기적의 도서관 유치로 도서관의 도시와 책 읽는 사회의 기폭제가 된 것처럼 어린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어린이를 위한 '기적의 놀이터'가 전국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만정원 가정의 달 새단장하고 관람객 맞이

흑두루미 컨셉 '꾸루꾸미원' 인기몰이

순천만 국가정원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새단장을 마치고 관람객 맞이에 들어갔다. 특히 천학의 도시 흑두루미를 컨셉으로 새롭게 조성된 꾸루꾸미원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순천만 흑두루미 탄생의 하모니를 주제로 조성된 꾸루꾸미원은 새 생명 탄생에 대한 행복이 꽃씨와 함께 날리 퍼져간다는 의미를 가진 정원이다.

꾸루꾸미원에는 대형 두루미조형물을 비롯한 정동어, 농개, 꼬막, 칠게 등 실제 순천만 자연 속에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의 조형물을 설치해 순천만의 변화무쌍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했다.

네덜란드 정원에는 다알리아꽃과 디지털리스를 이용해 화려한 포토존을 구성했으며, 5월 꽃의 여왕인 장미와 더불어 작약 수만송이가



꽃봉오리를 터트리고 있다.

또 미스김라일락 등 라일락 향기로 가득 차 있으며, 붓꽃과 알리움, 이팝나무 등 150여종의 5월을 대표하는 꽃들이 순천만국가정원 내 꽃향연을 펼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10일 "순천만국가정원이 조성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나무가 푸르름이 짙어지는 등 아름다운 힐링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연향3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무료 법률상담터 운영

순천시는 "연향 3지구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률상담터는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주 1회 운영한다.

상담은 임대차와 상속, 유산, 손해배상,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연향 3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또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

해 7가지 기초 건강측정(혈당, 빈혈, 스트레스, 체성분 등)과 9가지 기초체력측정(악력, 각근력 등)을 실시하고, 측정과 동시에 바로 수치를 분석해 개인에게 맞는 건강관리방법 상담도 제공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민을 위한 건강과 행복의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상담터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061-749-4260)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농협 순천시지부 영농지원 우수사무소 수상

농협 순천시지부는 "최근 영농지원 우수사무소로 선정돼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순천시지부는 지난 2013년 순천관내 농협직원들로 '순천미인농협봉사단'을 구성하고, 매월 직원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조성해 취약농가에 기부보일러용 등유와 연탄 등을 지원했다.

또 농가주부모임 순천시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매년 '사랑의 집 고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농가 박지와 장판교체, 노후전기 수리 등 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김충현 농협 순천시지부장은 "영농철 부족한 일손돕기는 물론 소외 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Advertisement for KBS1TV '아침마당' featuring a wedding scene and a list of members for the 'Imperial Club' (임페리얼 클럽).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 property with 15,628m² area, featuring a large house and a caf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H. 010-3119-6952.